

생활물가 상승에 주말 나들이 '겁나요'

휘발유 등 유류세 혜택 줄고 삼겹살·생닭·상추값 등 올라

광주에 사는 3인 가족이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떠날 경우 경비는 얼마나 들까?
최근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최소 4천500원에서 5천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삼겹살과 상추, 수박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것으로 현지 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나 아이들을 위한 과자, 아이스크림 값을 더하면 상황에 따라 1~2만원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유류세 인하로 세금 혜택이 줄고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삼겹살과 닭고

기 값 등 장바구니 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자동차 휘발유 값의 경우 왕복 200km를 다녀온다고 가정할 때 유류세 혜택이 줄어든 리터 당 58원과 유가상승액 78원(2019년 3월~5월)을 감안할 경우 최소 2천800원에서 3천원 정도(연비 10km 기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휘발유 값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의 광주지역 평균가인 리터당 1천506원을 적용했다.
삼겹살은 100g에 2천원 내외로 지난해 1천880원보다 120원 정도가 올랐고, 생닭 값도 1kg기준으로 4천 700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 값에 판매되고 있다.
상추는 100g 기준으로 600원에서 700원으로, 계란도 30알 특란이 4천500원에서 500원 정도가 올랐다.

삼겹살과 채소 값은 농협과 이마트, 롯데마트 판매가를 평균한 값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한 가격이다.
여기에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소주 값이 이미 올랐고 컵라면 값도 지난해 말부터 연초에 적게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상승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본격 출하를 앞둔 수박의 경우 날씨가 좋아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진 값에 거래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한모(45)씨는 "연초에 오른 택시비에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요금 등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며 "가족과 함께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여름마저 줄어들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18309@srb.co.kr

"편리하고 재미있는 '채팅상담' 하세요"

광주은행, 고객센터 상담 시스템 오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6일부터 모바일 웹뱅킹, 스마트뱅킹(APP), 인터넷뱅킹에서 '채팅상담' 시스템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채널의 채팅상담 시스템은 대기시간 없이 '키패드', '자주찾는 서비스', '직접 입력'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상담원과 빠르고 정확한 채팅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채팅상담 중 상담원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채팅창에 바로 가기 버튼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은 바로가기 버튼 클릭 한번으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주은행은 모바일 채팅상담에 이어 올 하반기 금융상담 챗봇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챗봇 시스템은 음성상담 및 이메일 상담 내역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챗봇과 연계하는 시스템



을 구축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앞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도록 고객 친화적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디지털 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국립광주과학관은 16일 천문·교육숙박으로 사용될 '별빛누리관' 개관식을 가졌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개관식

지상 3층 규모 천문·교육숙박 시설 122명 수용에 대강당·실험실 갖춰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16일 천문·교육숙박동 '별빛누리관'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들 앞에 선보였다.
이날 신축 별빛누리관 강당에서 개최한 개관식은 장병완 의원, 김경진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광주광역시 관계자,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김흥균 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개관식 행사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건립 기념영상 상영, 과학 마술쇼를 진행했으며 분식 행사 이후 주간 전체관측, 신축 시설 관람 순서

로 진행됐다. 풍암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날 개관식에 참여해 새롭게 조성한 실험실에서 첫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도 했다.
별빛누리관 건립은 그동안 전국의 5개 국립과학관 중 유일하게 숙박시설이 없어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구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개관할 수 있었다.
별빛누리관은 숙박시설과 전체관측 시설이 어우러진 체험관으로 연면적 2천525㎡, 지상 3층 규모의 천문 교육숙박동이다. 숙박시설은 26개실 122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강당, 쾌적한 교육 실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관층실에 들어설 지름 1.2미터 반사

망원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관측시설 중 최고 수준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체관측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천문 분야 영재 교육, 성인 및 전문가 대상 전체관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별빛누리관 개관으로 낮에는 테마형 과학교육을, 밤에는 전체관측을 하는 1박 2일 숙박형 과학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 또는 단체 단위로 참여가 가능한 숙박형 교육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순수 자연과학부터 코딩 교육, 체험수학 등의 커리큘럼을 다룰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 김선아 관장은 "감사와 염원이 담긴 별빛누리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 찾습니다

광주세관, 내달 5일까지 접수

관세청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공고를 했다.
이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이날부터 6월5일까지 '한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내면세점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는 6월5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3)에 접수하면 내달

중순경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내에 설치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48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한시적 면세점'은 광주전남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점하게 된다.
김광호 세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면세점 입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의 통로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광주신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행사

광산구 월곡시장서 농산물 구입

광주신보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은 지난 15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주관으로 광주시 소재 20개 전통시장과 광주시 소속 공공기관 등이 체결한 후원 협약에서 광주신보가 월곡시장과 결연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신보 임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와 광주신보카드를 이용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으며 자선 액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광주신보카드' 이용 활성화 캠페인도 동시에 벌였다.



박종광 이사장은 "광주신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곡시장과 후원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한전KDN TF팀, 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

에너지ICT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별지원TF를 꾸려 ICT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한전KDN은 먼저 안전 전력계통망 유지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최적의 상태를 확보하고 대회운영기간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패트를 팀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사이버 테러에 대해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과 침해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IT상황실 근무 직원을 파견해 경기 기록(계측), CCTV 운영 및 일반업무 등 대회조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KDN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 지급했다.
또 후원금 기부는 물론 한전KDN 직원가족의 자발적인 대회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철기자 doul18309@srb.co.kr

금타 새 본부장에 조강조

광주공장장은 황호길



김호타 이사장 생 산기술본부장에 조강조(사진) 전 광주공장장이 임명됐다.
조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무안에서 출생해 조선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에 입사한 이후 2015년 KTC(중국장춘공장) 법인장을 거쳐 2017년부터 광주공장장을 맡아왔다. 조강조 본부장은 광주·곡성·평택 공장을 비롯해 미국 조지아, 베트남 공장 등 국·내외 생산기지를 총괄 책임진다. 한편 이번 인사에 따라 신임 광주공장장에는 황호길 전 생산기획팀장이 임명됐다.
김호타 이사장은 "신임 생산기술본부장을 필두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지역 본부 사옥에서 '지역 ICT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 확산이 답"

LX광주·전남본부, ICT기업과 간담회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권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15일 지역 본부 사옥에서 '지역 ICT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LX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실험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포어사이트를 비롯한 13개 ICT기업과의 협업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권 본부장은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이라며 "LX가 업무협약을 맺은 한글과컴퓨터와 같은 대기업과의 협업 사례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업체들은 "국내 공간정보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아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LX가 스마트시티 플랫폼 판을 키워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여수 그린씨푸드, 100만 달러 中 수출 쾌거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지원 성과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전남도 중국 시장개척단'에 참가했던 지역기업이 상담 2개월만에 중국 수출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조기 성과는 전남도와 진흥원, 전남 FTA지원센터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실질적인 지원 노력과 더불어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남도와 진흥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충칭, 항저우, 웨이하이 등 3개 도시

에 지역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 93개 현지기업 바이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1천450만 불(10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남도와 진흥원은 당시 참가기업 중 여수시 소재 수산물 가공처리업체인 ㈜그린씨푸드(대표 최동기)가 중국 바이어 5개사와 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고, 그 가운데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우선 확정했다.
㈜그린씨푸드 최용원 과장은 "올해 말까지 40피트 컨테이너 9개 물량을 추가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